

Daily Auto Check

2021. 7. 9(Fri)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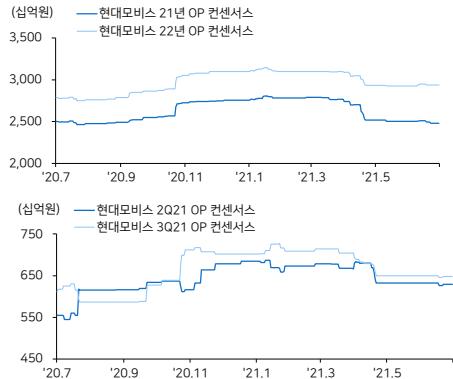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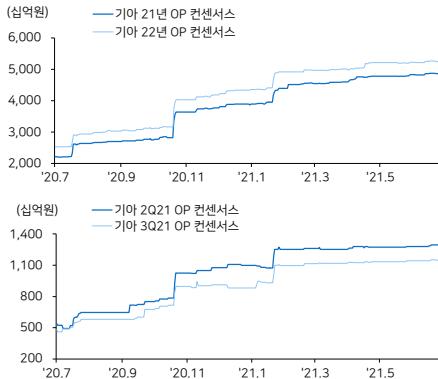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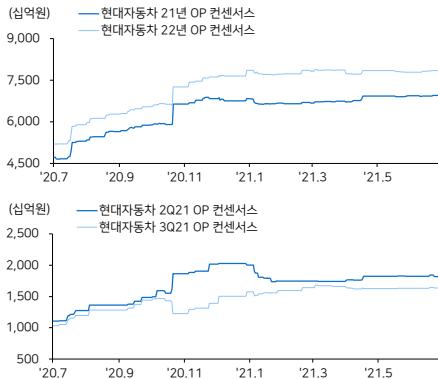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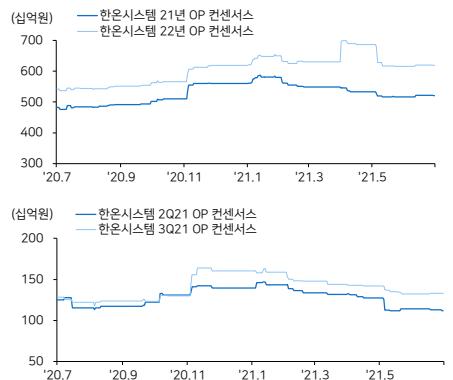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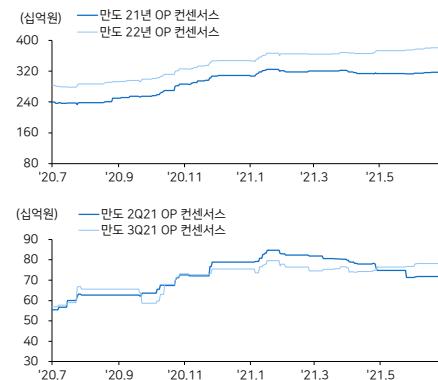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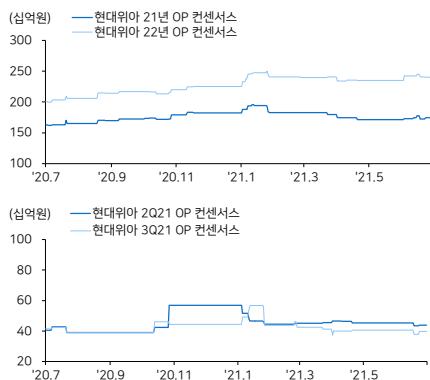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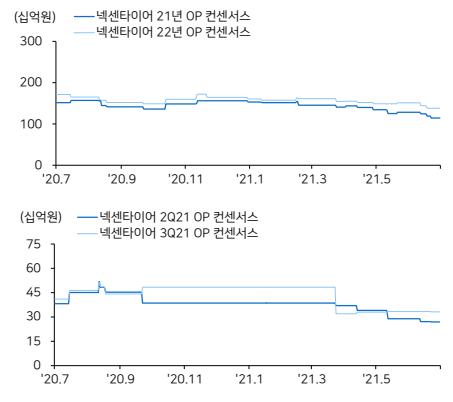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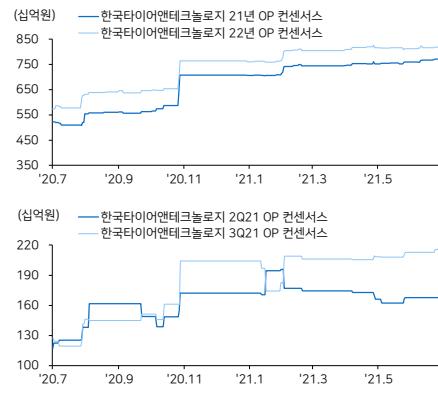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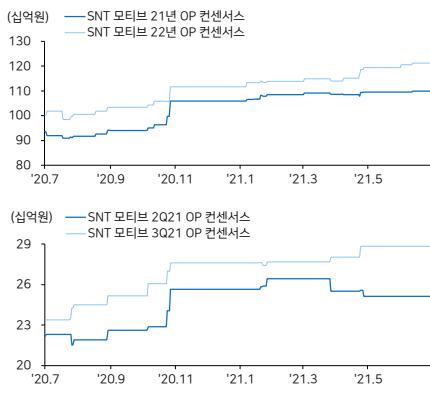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전기차 전환 현대차 아산공장 13일부터 가동중단 (뉴스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오는 13일부터 전기차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 휴무에 들어감. 현대차는 오는 11월쯤 20여 일 공장을 추가로 세우고 남은 설비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아이오닉6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짐.
<https://bit.ly/2UC48Vz>

현대차, 2022년까지 '선팍용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한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전세계로 벌써 서비스, 한국선급과 손잡고 수소연료전지 선팍 시장 진출. 이번 협약은 차량용 연료전지(PEMFC)를 활용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 선급 형식승인을 받아 '22년까지 상용화가 목표.
<https://bit.ly/2UzRxGJ>

EU fines Volkswagen, BMW \$1 bln for emissions cartel (Reuters)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폭스바겐과 BMW가 배기ガ스 정회 기술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총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이에 폭스바겐은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며, BMW는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https://reut.rs/36rG5CR>

화웨이·폭스바겐, 4G 특허 라이선스 계약…美제재 탐색찾기 성공 (THE GURU)

중국 화웨이가 독일 폭스바겐의 커넥티드카에 4세대(4G) 기술을 제공함.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 폭스바겐은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을 확대 중.
<https://bit.ly/36Qj82>

현대 아이오닉5, 배터리 용량 더 커진다 (CEOScoreDaily)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배터리 용량을 기아 EV6급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EV6 대비 부족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만회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전기차 구매 시 최대 주행 거리를 고려하는 소비자 성향도 반영됨.
<https://bit.ly/3AHInns>

배터리도 구독시대… '반값' 전기차 나온다 (디지털타임즈)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고, 배터리 비용은 다달이 혹은 연마다 납부하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 소비자의 전기차 구입 비용이 경감돼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https://bit.ly/3dYKOzT>

세계 4위 스텔란티스 전기차에 '올인'…5년간 41조 투자 (연합뉴스)

카플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8일 화상으로 진행한 'EV DAY'에서 '25년까지 전기차 개발/양산에 약 4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힘. '30년까지 유럽 판매 70%, 미국판매 4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https://bit.ly/36IV4yb>

中 오토X "센서 50개"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양산" (ZDNet Korea)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X'가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X Gen5(Gen5)'를 발표하고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힘. 올해 1월엔 대중용을 상대로 로보택시 운행을 실시했으며,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완전 무인 로보택시의 운행을 시작한 기업.
<https://bit.ly/3dSmI3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